

제 14 회

儒學大學

순성놀이

- 일시 : 2021년 04월 30일 금요일 10:00~13:00
- 구간 : 청계천·성북천 일대
마전교 - 전태일다리 - 오간수교 - 비우당교 - 보문사 - 비우당

주최: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주관: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 養賢齋

한양도성

한양도성은 1392년에 건국하여 1910년까지 지속된 조선왕조의 수도였던 한성부를 둘러싸고 있는 조선시대의 성곽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도읍을 둘러싼 성곽과 문을 지칭하며 넓은 의미로는 성곽과 그 안의 공간을 가리킵니다. 한양도성에는 4대문과 4소문을 두었는데 4대문은 흥인지문·돈의문·승례문·숙정문이며, 4소문은 혜화문·소의문·광희문·창의문입니다. 이 중, 돈의문과 소의문은 멸실되었습니다. 또한 도성 밖으로 물길을 잇기 위해 흥인지문 주변에 오간수문과 이간수문을 두었습니다. 평균 높이 약 5~8m, 전체 길이 약 18.6km에 이르는 한양도성은 현존하는 전 세계의 도성 중 가장 오랜 기간(1396~1910, 514년) 동안 도성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순성놀이는 입신양명의 꿈을 안고 상경한 선비들이 도성을 돌며 급제를 빌었던 풍습에서 출발했습니다. 한양도성은 600여 년 간 서울의 울타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도성민들은 도성을 돌며 소원을 빌기도 하고, 도성 안팎의 아름다운 자연경치를 감상하기도 했습니다. 정조 때 학자인 유득공은 서울의 세시풍습을 기록한 『경도잡지』에서 순성놀이를 “도성을 한 바퀴 빙 돌아서 안팎의 멋진 경치를 구경하는 놀이”라고 설명하였고 그의 아들인 유본예(1777~1842)도 『한경지략』에서 “봄 여름이면 한양 사람들은 짝을 지어 성 둘레를 한 바퀴 돌며 안팎의 경치를 구경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청계천(淸溪川)의 역사

〈청계천변 관자촌 전경〉, 서울역사박물관



〈화장공사 후 청계천로 모습〉,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이 조선의 수도로 정해지기 전 청계천은 자연상태의 하천이었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서울의 지리적 특성상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은 도성 한가운데로 물길이 모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조선왕조가 도성 안에 있는 수로를 정비하기 전에 이미 자연스럽게 물길이 형성되었습니다. 태종은 자연상태에 있던 하천의 바닥을 쳐내서 넓히고 독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큰 비가 올 때마다 피해가 발생하여 하천을 정비하기 위한 임시기구를 설치하여 관리하였습니다. 그의 아들 세종은 지천의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도랑을 파서 물길을 하천 하류에 바로 연결시켰으며, 개천 상류로 물러들어 넘쳐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도심의 홍수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세종 이후로 별다른 준설작업이 없어 토사가 지속적으로 쌓여 수문이 막힐 지경에 이르자, 영조는 하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개천을 준설하였으며 하천을 직선화 시키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습니다. 영조의 업적은 중국 고대 하(夏)나라 우(禹)임금의 치수나 수(隨)나라 양제(揚帝)의 운하정비와 비교할 만합니다.

일제강점기 청계천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선 500년동안 불리어 오던 ‘개천(開川)’이라는 이름 대신에 ‘청계천’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청계천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때는 정확하지 않지만, 일제에 의하여 하천명칭들이 정리될 때 개정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1930년대 이후 일본은 청계천 정비를 위하여 여러가지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실현하지 못하였습니다.

1950년에 이르자 청계천은 한국 전쟁 직후 가장 대표적인 슬럼지역으로 변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 청계천 복개사업이었고, 1958년부터 1977년까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광고부터 시작해서 청교 6가, 8가를 거쳐 신답철교 구간까지 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청계천의 복개 구조물과 노후로 인한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이명박 당시 서울특별시장은 청계천 복원 작업에 착수하여 2005년에 완료하였습니다.

제1회 순성놀이(2015. 5. 10)

퇴계인문관 - 와룡공원 - 혜화문 - 낙산 - 이화마을

제2회 순성놀이(2015. 10. 31)

퇴계인문관 - 말바위전망대 - 숙정문 - 백악마루 - 창의문 - 부암동

제3회 순성놀이(2016. 4. 19)

송례문 - 남산 팔각정 - 남소문터 - 장충체육관 - 광희문 - 동대문

제4회 순성놀이(2016. 11. 5)

송례문 - 배재공원 - 정동길 - 경교장 - 인왕산 순성길 - 창의문

제5회 순성놀이(2017. 5. 13)

퇴계인문관 - 와룡공원 - 혜화문 - 낙산 - 이화마을

제6회 순성놀이(2017. 11. 11)

퇴계인문관 - 말바위전망대 - 숙정문 - 백악마루 - 창의문 - 부암동

제7회 순성놀이(2018. 5. 12)

송례문 - 남산 팔각정 - 남소문터 - 장충체육관 - 광희문 - 동대문

제8회 순성놀이(2018. 11. 3)

송례문 - 배재공원 - 정동길 - 경교장 - 인왕산 순성길 - 창의문

제9회 순성놀이(2019. 5. 3)

퇴계인문관 - 와룡공원 - 혜화문 - 낙산 - 이화마을

제10회 순성놀이(2019. 11. 2)

창룡문 - 장안문 - 화서문 - 수원행궁 - 서장대 - 팔달문

제11회 순성놀이(2020. 6. 22)

와룡공원 - 혜화문 - 낙산 - 이화마을 - 흥인지문

제12회 순성놀이(2020. 11. 7)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앞 - 안산 자락길(메타세쿼이아 숲길 - 숲속무대 - 안산정 - 능안정) - 서대문독립공원(서대문형무소역사관, 독립문)

제13회 순성놀이(2020. 11. 27)

강원도 일원(초지진-전등사-교동서원)

제14회 순성놀이(2021. 4. 30)

마전교 - 전태일다리 - 오간수교 - 비우당교 - 보문사 - 비우당

제14회 순성놀이 일정(2021. 4. 30)

10:00~10:30	집합 발열체크 및 기념사진 촬영
10:30~13:00	순성 청계천 · 성북천 일대 탐방 (마전교-전태일다리-오간수교-비우당교-보문사-비우당)
13:00~	해산

제 14회 순성놀이 코스



01 마전교(馬前橋·馬廬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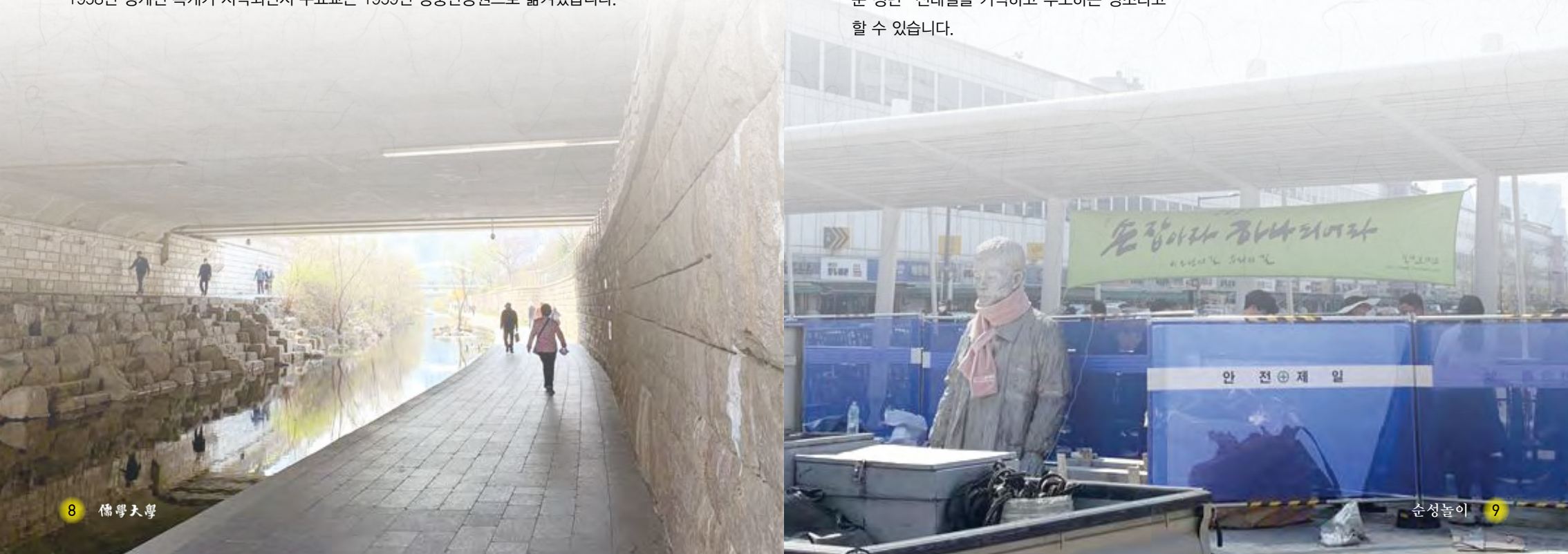
▲ <마전교>, 서울시설공단

마전교는 중구 수표동 43번지와 종로구 관수동 20번지 사이 청계천에 있었던 다리입니다. 세종 2년(1420)에는 다리 옆에 우마(牛馬)를 매매하는 마전(馬廬)이 있었기 때문에 마전 앞에 있는 다리라는 의미에서 마전교(馬前橋) 혹은 마전교(馬廬橋)라고 불렸습니다. 세종 23년(1441) 다리 서쪽 중앙에 나무로 수표(水標)를 만들어 세우면서 수표교라고도 하였습니다.

이 수표는 성종 때에 돌로 만들어 세웠으며, 영조 36년(1760) 대대적인 개천 준설 후에 수표석을 다시 세웠습니다. 영조 때 준천 이후 수표교 교각에 '경진지평(庚辰地平)' 네 글자를 새겨서 이후 개천 준설의 표준을 삼도록 하였습니다. 영조 44년(1768)과 고종 24년(1887)에 개수하고 다리 난간에 '무자금영개조(戊子禁營改造)'와 '정해개축(丁亥改築)'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1958년 청계천 복개가 시작되면서 수표교는 1959년 장충단공원으로 옮겨졌습니다.

02 전태일다리(버들다리)

평화시장 입구 앞에 놓여있는 이 다리는 원래 청계천에 자라는 버들에서 이름이 유래했으며, 2005년 청계천 복개공사를 통해 설치된 청계천 22개 다리들 중 하나입니다. 다리가 놓인 지 5년 후인 2010년, 전태일40주기범국민행사위원회가 버들다리 개명 운동을 벌였고, 2년 뒤 '전태일다리'로 변경되었습니다. 전태일다리 중간에는 전태일의 반신동상이 있으며, 청계천의 물을 담고 다리 위에 올라서 평화시장 일대를 바라보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도로 바닥에는 35주기 때 만든 기념 동판 3,000여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전태일다리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03 오간수교(五間水橋)

청계천 물줄기가 도성을 빠져나가는 지점, 즉 동대문에서 을지로5가로 가는 청계천에 놓여 있던 다리입니다. 조선시대 한성에 성곽을 쌓으면서 청계천 물이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아치형으로 된 5개의 구멍을 만들어 홍예교(虹蜺橋)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예 위에 성곽을 쌓아 올렸으며, 아치 모양의 구멍을 서로 연결하여 성벽 안쪽으로 장대석을 연결하여 다리를 놓았습니다.

이 다리는 다섯 칸의 수문을 설치했다고 하여 오간수다리·오간수문 등으로 불렸으나 성종 12년(1481)까지만 해도 수문이 3개였고 후에 몇 차례 증축을 거쳐 5개의 수문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수문은 도성 안에서 죄를 지은 자가 도성을 빠져나가거나 혹은 몰래 도성 안으로 잠입하는 사람들의 통로로 곧잘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명종 때 전국적으로 사회를 흥흥하게 만들었던 임꺽정의 무리들이 도성에 들어와 전옥서(典獄署)를 부수고 도망갈 때에도 이 오간수문을 통해 달아났습니다. 1907년 일제가 청계천 물이 잘 흘러가게 한다는 명목으로 오간수문을 모두 헐어버리고 콘크리트 다리로 교체하였다가 후에 그 위의 성곽이 훼손되면서 함께 없어졌습니다.



▲ 오간수교 옛날 모습



▲ 오간수교 현재 모습

04 비우당교(庇雨堂橋)

비우당교는 동대문구 신설동 100번지와 성동구 상왕십리동 12번지 사이 청계천에 있는 다리입니다. 종로구 송인동에 조선 초기 정승을 지낸 유관(柳寬)이 장마철에 일산(日傘)을 펴고 비를 근근히 가리며 살 정도로 청빈하였는데, 조선 후기 실학자인 지봉(芝峰) 이수광(李睟光)이 이곳에 작은 집을 짓고 당호를 비우당(庇雨堂)이라고 하여 청빈한 삶의 중요성을 알렸다고 합니다. 이에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청빈의 정신을 살려 다리 이름을 비우당교라고 하였습니다. 폭 26.5m, 길이 44.6m로 2005년 9월 30일 (주)현대건설에 의해 준공되었습니다.



05 보문사(普門寺)



보문사는 1115년(예종 10)에 담진국사(曇眞國師)가 창건하고 보문사라고 명명했는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1692년(숙종 18)에 중건되었습니다. 옛날 건물로는 영조(1721~1776) 때 건축된 대웅전이 남아있습니다. 이 절은 1972년 대한불교보문종으로 등록하여 동양 유일의 비구니종단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그해 6월 16일에는 경주 석굴암을 본뜬 석굴암을 축조하였습니다.

불가에 의하면 몸체의 온갖 덕(德)을 보(普)라고 하고, 쓰임을 나타내는 곳을 문(門)이라 합니다. 따라서 보문이란 곧 보살이 일체성덕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기회와 시기를 따라 그 효용을 보임을 말합니다. 보문사는 전통사찰로서 그 면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6 비우당(庇雨堂)

비우당(庇雨堂)은 '비를 가리는 집'이라는 뜻으로, 조선시대 실학자인 지봉(芝峯) 이수광(李睟光, 1563~1628)이 살던 곳입니다. 낙산(駱山) 동쪽 상산(商山)의 한 줄기인 지봉 아래 있었는데, 이수광의 호 지봉이 여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원래는 창신동 쌍용2차아파트 자리에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낙산공원을 조성하면서 이곳에 복원하였습니다.

조선 초기의 청백리로 명성이 높은 유관(柳寬)이 이곳에서 살았는데 지봉이 새자 손수 우산을 받치고 살면서 부인에게 "우산 없는 집은 어떻게 견딜꼬?"라 농담을 하였다는 '유재상의 우산[柳相雨傘]'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이곳은 외손인 이수광 집안으로 상속되었는데, 그 집이 임진왜란 때 소실되자 이수광이 집을 새로 짓고 그 이름을 비우당(庇雨堂)이라 하였습니다.



07 청계천 헌책방거리

청계천 헌책방거리는 1960년대에 거리에서 노점식으로 운영되던 헌책방들이 청계천 복개 공사로 인해 갈 곳이 없어지자 평화시장 일대로 모이면서 만들어진 거리입니다. 이 거리에는 과거로부터 쌓여온 추억과 더불어 그 모습까지 남아있고, 서울시에서도 청계천 헌책방 거리에 여전히 남아 있는 근현대적 시민생활 모습을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3년 서울시미래유산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반세기 동안, 청계천에 위치한 헌책방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추억과 지식들이 녹아있는 보물창고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헌책방들이 길게 이어진 헌책방 거리는 시간이 덧대어져 그리운 옛 느낌을 자아냅니다. 오래된 고서적부터 최근에 나온 인기있는 책들까지 다양한 책들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새책과 큰 차이 없는 깔끔한 책들 역시 이곳에 가득합니다.



08 흥인지문(興仁之門)

서울 성곽은 옛날 중요한 국가시설이 있는 한성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도성(都城)으로, 흥인지문은 성곽 8개의 문 가운데 동쪽에 있는 문입니다. 흔히 동대문이라고도 부르는데, 조선 태조 5년 도성 축조때 건립되었으나 단종 원년에 고쳐 지었고, 지금 있는 문은 고종 6년에 새로 지은 것입니다. 앞면 5칸·옆면 2칸 규모의 2층 건물로, 지붕은 앞면에서 볼 때 사다리꼴모양을 한 우진각 지붕입니다.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장식하여 만든 공포가 기둥 위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있는 다포 양식인데, 그 형태가 가늘고 약하며 지나치게 장식한 부분이 많아 조선 후기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깥쪽으로는 성문을 보호하고 튼튼히 지키기 위하여 반원 모양의 옹성(甕城)을 쌓았는데, 이는 적을 공격하기에 합리적으로 계획된 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흥인지문은 도성의 8개 성문 중 유일하게 옹성을 갖추고 있으며, 조선 후기 건축 양식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흥인지문), 한국관광공사

09 성북천(城北川)

성북천(城北川)은 서울특별시의 북쪽에 위치한 북악산(北岳山)의 동쪽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흘러 동대문구 신설동에서 청계천과 합류하는 하천입니다. 길이는 5.11km로 하류지역은 잘 정비되어 있고 상류 지역은 복개되어 있으나 점차 자연하천으로 복원되고 있습니다. 도성의 북쪽에 있기 때문에 성북이라는 지명이 붙었습니다. 성북천을 안암천(安巖川)이라고도 부르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임금이 능에 거동할 때에는 도성 안팎의 교량을 호조(戶曹)에서 수리 개선하는데, 동쪽은 안암천을 한계로 하고"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내문

순성놀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순성놀이 시작 전 발열체크를 실시합니다. 발열 시 행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순성놀이 동안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에 항상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행동은 삼가주시고 담당 교수 및 진행 요원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대화를 삼가고 봄날의 청계천 거리를 눈과 마음에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 비상연락처 |

양현재 재감_설준영 010-5847-0545

TA_신누리 010-7773-6596, 양현지 010-4921-1623, 전창재 010-9959-6137

| 행사 총괄 |

유학대학 학장 및 양현재 전재_신정근

| 기획 및 편집총괄 |

양현재 재감_설준영

| 자료제작 |

양현재 TA_신누리, 양현지, 전창재

| 행정지원 |

유학대학 행정실_실장 한진오, 과장 박인봉

| 홍보 |

유학대학 유학동양학부 조교_반건희

| 표지 붓글씨 |

김진희

| 자료 출처 |

청계천(淸溪川)의 역사

순성놀이 코스 네이버 지도(<https://map.naver.com>)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https://www.sisul.or.kr/open_content/cheonggye)

1. 마전교(馬前橋·馬廬橋)

[네이버 지식백과] 마전교 [馬前橋·馬廬橋] (서울지명사전, 2009. 2. 13., 서울역사편찬원)

2. 전태일다리(버들다리)

김진홍, <50주기 '전태일'을 떠올릴 수 있는 장소 5곳>, 서울시 뉴스, 2020.11.16.

3. 오간수교

[네이버 지식백과] 오간수교 [五間水橋] (서울지명사전, 2009. 2. 13., 서울역사편찬원)

4. 비우당교(庇雨堂橋)

[네이버 지식백과] 비우당교 [庇雨堂橋] (서울지명사전, 2009. 2. 13., 서울역사편찬원)

5. 보문사

[네이버 지식백과] 보문사(普門寺) (두산백과)

6. 비우당

낙산공원관리소, 비우당 소개 입간판

7. 청계천 현책방거리

청계천현책방거리 홈페이지(<https://cleanstream.modoo.at>)

8. 흥인지문

[네이버 지식백과] 흥인지문 (대한민국 구석구석, 한국관광공사)

9. 성북천

[네이버 지식백과] 성북천 [城北川, Seongbukcheon]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지명, 2008. 12.) /성북천 (서울지명사전, 2009. 2. 13., 서울역사편찬원)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 養賢齋

